

일본 면방적의 실 개발 현장

- 일본에서 생산할 실의 가치 찾아 <2/2>

◎ 다이와보노이 - 신예 설비로 일본 국내 방직 거점을 정비

다이와보노이는 2007년에 불타버린 다이와보 머티어리얼즈(materials)의 전(前) 마이즈루(無鶴) 공장을 대신하는 일본 국내 방직 거점으로서, 2008년기에는 그룹 회사(group 會社)인 시마네현(島根縣) 마츠에시(松江市)에 있는 신지 텍스타일을 살리기 위하여 정비해왔다. 2008년 5월에는 시동식(始動式)을 가졌으며, 현재는 풀 가동 생산 체제(full 稼動 生産 體制)로 돌아가고 있다.

신지 텍스타일에는 도요타 자동 직기(豊田 自動 織機)의 최신예 링 정방기(最新鋭 ring 精紡機) RX240 3대 등이 새로 도입되어 기존 설비와 합하여 링 정방기 1만 2천 추 체제로 되었다. 또한 신예 코머(comber)기 4대를 새로 설치한 외에도 연조기(連條機), 조방기(粗紡機)도 증설하는 등 전방 공정(前紡 工程)을 충실하게 보완하였다.

동사에서는 앞으로 이들 신예 설비를 활용하여 실을 개발할 것이다. 이미 350수 이합 연사(二合 撚糸) 클래스(class)의 정방 교연사(精紡 交撚糸) ‘세람스핀’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 등에서 240수 단사를 생산하고 있어, 이에 대항하여 한층 더 세(細) 변수화하는 데에도 도전할 것이다. 또한 충실한 전방 공정을 살려 다품종 소로트 생산(多品種 小lot 生産)에서도 높은 기술을 보여줄 생각이다.

동사는 원사(原糸)는 판매하지 않고 텍스타일과 제품으로서 판매하기로 하

였다. 그래서 도비(dobby) 직기 20대를 포함한 직기 40대를 시마네현 이즈모 시(出雲市)에 있는 다이와보 프로그레스(progress)의 이즈모 공장으로 옮기고 공장끼리 서로 긴밀하게 제휴하고 있다. 신지 텍스타일의 개발사로, 이즈모 공장에서 고밀도 직물을 생산함으로써 해외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텍스타일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제품 사업으로 이어나가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미 직포 공장도 풀 생산하는 등 완전 가동하고 있다. 동사에서는 신예 설비의 잠재력(potential)을 보여줌으로써 빠르게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 다이쇼 방적 - 오가닉 코튼 + 천연 염색을 중요시

다이쇼(大正) 방적은, 장기로 되어 있는 오가닉 코튼(organic cotton)을 천연 염료로 염색한 염색사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 한 예(例)가 천연 염색한 톱 염색사(top 染色糸) ‘낙양염(洛陽染)’이 되겠다. 오가닉에 플러스 알파(plus α)의 부가 가치를 붙여줌으로써 한층 더 차별화사로서 판매하고 있다.

낙양염은 교토(京都)의 염료 메이커, 염공장(染工場), 교토시 산업 기술 연구소(京都市 産業 技術 研究所) 섬유 기술 센터(纖維 技術 center)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천연 염료의 약점인 염색 견뢰도의 문제를 해결한 톱 염색사(top 染色糸)이다. 동사는 황적색(黃赤色 찰흙)이나 벵갈라(Bengala : 황토를 구워서 만든 빨간색 顔料) 염색 등 천연 염색에 의한 염색사 방적으로, 풍부한 노하우(know-how)를 갖고 있던 것이 개발에 성공하게 된 요인이며, 이미 일부의 어퍼웨어는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주로 구주(歐州) 시장으로 수출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이쇼 방적에서도 유럽의 안전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낙양염의 안전성을 국제 인증(國際 認證) 에코텍스 100으로 받을 예정이다.

동사가 오가닉+α를 중요시하고 있는 배경에는 “현재의 오가닉 인기는 한때의 붐에 불과하며, 언젠고 붐이 꺼지면 살아남는 것은 진짜 소재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연 염색 외에도 오가닉 코튼과 오가닉 울(wool)이나 리넨(linen), 실크 등과의 복합 소재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또한 오가닉 소재에 기능성을 보태주는 연구도 현재 추진 중이다.

◎ 신나이가이멘 - 고상한 얼룩실 컨셉으로 각종 형상 변화사 개발

신나이가이멘(新内外綿)은 넵사(nep糸)나 슬럽사(slub糸)와 같은 형상 변화사(形狀 變化糸)를 열심히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 개발의 컨셉(concept)은 고상한 얼룩실로서, 이미 고상한 쇼트 피치 슬럽사(short pitch slub糸)나 컬러 넵사(color-nep糸)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안하고 있다.

신나이가이멘이라고 하면, 이색 연사(異色 撚糸<모쿠이도> : grandrelle yarn)와 같은 색상 변화사(色狀 變化糸), 정제 셀룰로스(精製 cellulose) 섬유 텐셀이나 수모(獸毛)를 활용한 혼방사(混紡糸) 등의 생산이 장기(長技)이지만, 이들보다도 얼룩실과 같은 형상 변화사(形狀 變化糸)에 더 힘을 쏟고 있다. 트렌드(trend)가 이제까지 깨끗한 것만을 좋아하던 것이, 캐주얼 테이스트(casual taste)로 점차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통의 얼룩실이 아니고 텐셀 100%나 면·텐셀 혼방(混紡), 마(麻) 혼방 등의 독자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이미 쇼트 피치 슬럽사인 마이크로 웨이브(micro-wave), 텐셀 100%의 컬러 넵사(color nep糸)를 직접 만들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생지로 만들었을 때 캐주얼감(casual感)과 고상함을 같이 보여주는 등의 개성적인 생지의 표정을 나타낼 수 있는 실이다.

동사는 니트사가 중심이지만, 직사(織糸)도 열심히 생산하고 있다. 세(細)

변수나 태(太) 변수 등의 변수 구성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슬립사(逆 slub糸)와 같은 형상 변화사도 직사 용도로 활용할 생각이다.

다른 한편으로, 판매면(販賣面)에서는 독자적인 QR시스템(quick response system) ‘빠른 안’이 큰 힘을 보이고 있다. 동사의 실판매는 현재, 정변사처럼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고, 빠른 안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 현장과의 제휴로 효율도 오르고 있다. 동사에서는 텐셀을 중심으로 한 원료 스톡(原料 stock)이나 혼방 기술을 살려, 고객의 니즈(needs)를 섬세하게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있다.♣